



◆겨울의 볼미 '빙어'를 직접 잡아 맛볼 수 있는 빙어축제가 인제군 남면 부령리 소양호에서 열린다.

굴러서 재미있고, 입도 즐거운...

2010 얼음별 빙어 축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만 추위도 너무 추운 2010년 첫 달이다. 두툼한 복장으로도 지내기에 이번 겨울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겨울 휴학에 '방콕족'이 될 것인가? 위풍당당 허리띠고 추워야 제맛인 1월에 소문난 겨울축제 추위를 화끈하고 재미있게 이겨보자!! 인제군 남면 부령리 소양호에는 올해로 13회째 개최되는 빙어축제가 열린다. 풍광 연 소양호 위에 구멍을 뚫

고, 툇밤 속에서 고이 고이 길러온 미끼를 최대한 꼼지락거리게 매달고 잠시만 주위의 눈 조각작품으로 눈을 돌려 기다리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손맛에 온몸이 찌릿찌릿, 겨울철엔 특히 더 몸체가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깨끗한 빙어가 올라온다. 잡아서 호기 좋게 초장 찍어 산채로 입에 넣는 재미도 일품인 빙어는 특성상 때로 이동을 하기에 낚는 대박자리와 쪽박자리는 물론 있으니 그야말로 불복인 셈이다. 그러나 쪽박자리로 인해 실망하기엔 빙어 축제장이 꽤 '버라이어티'하다.

양껏 내려준 눈으로 만든 아름다운 눈조각들과 설인이라도 숨어 있을 거 같은 눈꽃나무 숲, 얼음 썰매, 인간볼링, 컬링 등의 빙상 놀이전국과 강원도 산촌만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까지...! 굴러서 재미있고, 먹어서 행복한 축제! 추위도 무색하게 만드는 겨울축제의 정점, '인제빙어축제'는 오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injefestival.co.kr>)와 인제관광정보센터 (033-460-2170,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제에는 기차역이 없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버스를 이용해야하며 축제장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은 신남터미널로, 신남터미널에서 인제행 시내버스를 탄 후 운전기사에게 도착지인내를 부탁하면 도착할 수 있다. 한편, 축제기간 중에는(1.28~1.31 4일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료 셔틀버스 운행시간표는 1월 21일부터 안내 가능) 빙어축제장 내 입장료, 주차료는 모두 무료다.



◆얼음별 위의 어린이 강태공

- 버스)
- ▲ 동서울 ↔ 신남 : 동서울버스터미널 (2시간 20분 소요) 02-446-8000
 - ▲ 상봉동 ↔ 신남 : 상봉동버스터미널 (2시간 20분 소요) 02-435-2122
 - ▲ 양양 ↔ 신남 : 양양시외버스터미널 (1시간30분 소요) 033-671-4411
 - 신남버스터미널 033-461-6021
- 승용차)
- ▲ 서울 → 춘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 동흥천 → 신남 (2시간 소요)
 - ▲ 서울 → 양평 → 흥천 → 신남 (2시간 30분 소요) : 양평에서 44번 국도 이용
 - ▲ 서울 → 영동고속도로 → 원주 → 흥천 → 신남 (2시간 소요) : 흥천에서 44번 국도 이용
 - ▲ 부산 → 대구 → 중앙고속도로 → 흥천 → 신남 : 흥천에서 44번 국도 이용

남산 주변 행사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 남산 문화달력 게재

오랜만에 아이와 남산에 들러 에니메이션센터와 한옥마을을 가고 싶는데 일일이 문화 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시는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남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문화달력을 홈페이지

에 게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남산공원 주변에는 국립극장,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에니메이션센터 등 많은 문화시설이 있으나, 그동안 이를 이용 하려면 개별시설별로 일일이 문화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민고객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해 6월

부터 남산주변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문화달력을 만들어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남산르네상스(namsan.seoul.go.kr),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parks.seoul.go.kr) 및 남산르네상스 블로그 (blog.naver.com/namsanstory)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24절기에도 영향

우리나라는 중위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24절기는 일 년에 걸친 태양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천문학적 계절로서,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은 24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에 맞는 세시풍속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특정 시기의 기후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24절기의 기후 특성도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이해하기 V-입춘에서 대한까지'에 따르면 여름철 절기의 평균·최고·최저기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으나 겨울철 절기에는 상승 경향이 뚜렷했다.

다. 즉, 지난 90년 동안 곡우에 강수량이 관측된 해의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나 곡우에 강수가 관측되지 않는 해는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사에 필요한 물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서 소서는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전선이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1919~2008년 동안 소서에 비가 내린 해의 빈도는 80% 이상으로 전 기간의 90% 이상의 소서에 강수 현상이 관측됐다. 1970년대 이후 소서에 강수가 관측되지 않은 해가 1~6회로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시기를 의미한다. 강릉, 서울, 인천, 대구, 전주에서 상강 전에 첫서리가 내린 해의 빈도는 초기(1919~1948년)에서 후기(1979~2008년) 동안 2~21회 감소했다. 반면에 상강 후에 첫서리가 내린 해의 빈도는 3~16회 증가했으며 목포는 초기와 후기 모두 상강 후에 첫서리가 내렸다. 소설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한다.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소설 전에 첫눈이 내린 해의 빈도는 초기(1919~1948년)에서 후기(1979~2008년) 동안 1~3회 감소한 반면 소설 후에 첫눈이 내린 해의 빈도는 0~3회 증가했다. 전주와 목포에서는 소설 전에 첫눈이 내린 해의 빈도는 3~4회 증가했고, 소설 후의 빈도는 2~3회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후를 표현하는 절기의 기후 특성 변화

● 우수 우수는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을 지닌다. 1937~1966년 기간에 비해 1979~2008년 기간에 우수에 눈 현상이 나타나는 빈도는 7개 관측 지점(강릉,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부산, 목포)별로 1~8회 감소한 반면에 비 현상이 나타나는 빈도는 6~9회 증가했다. ● 곡우 곡우는 봄비가 내려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뜻이며, 이 시기의 강수는 못자리 마련 및 가뭄 해갈에 중요하다. 1919~2008년 동안 곡우에 강수가 관측되었던 해의 빈도는 7개 지점별로 초기(1919~1948년)에 비해 후기(1979~2008년)에 변화가 없거나 2~5회 감소했다. 곡우의 강수량은 초기에 비해 후기에 2.3~9.3 mm 증가하였

● 대서 대서는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나 1919~2008년 동안 한반도의 일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8월 10~11일로 30.8°C이다. 즉, 최고기온의 일반화로 볼 때 가장 더위가 심한 시기는 입추 부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1919~1948년)에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8월 1~3일(31.1°C)이며, 후기(1979~2008년)에는 8월 1~2일로 30.8°C이다. ● 처서 처서는 더위가 물러나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다. 1919~2008년 동안 처서의 평균 일교차는 내륙에 위치한 서울, 대구, 전주 등에서 8.2~8.6°C로 큰 편이며, 강릉, 인천, 부산, 목포 등의 일교차는 6.4~7.2°C이다. 초기(1919~1948년)에서 후기(1979~2008년) 동안 일교차는 0.8~2.2°C 감소했다. ● 상강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 소설 소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를 의미한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은 1월에 최대 강설량 분포를 보인다.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전주와 목포 역시 12월에도 비교적 강설량이 많으나 1월에 최대 강설량 분포를 보인다. 중부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강릉은 1월 말에서 2월 초의 시기와 2월 중순에 강설량이 많다. ● 소한과 대한 1919~2008년 동안 소한과 대한의 평균기온은 각각 -0.7°C, -0.9°C로 소한보다 대한 때의 평균기온이 0.2°C 낮다. 그러나 지난 90년 동안 대한보다 소한의 최저기온이 더 낮았던 해는 51.4%, 소한보다 대한의 최저기온이 더 낮았던 해는 48.1%이다.



현대홈타운

지금 방송중...

당신의 행복드라마...

한데 곱라운-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행복한 주인공, 아름다운 공간-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드라마-한데 곱라운이 그 무대가 됩니다

